



＼ 줄이자! ／ 약제내성

약제내성(AMR)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제작: 내각관방 내각감염증위기관리총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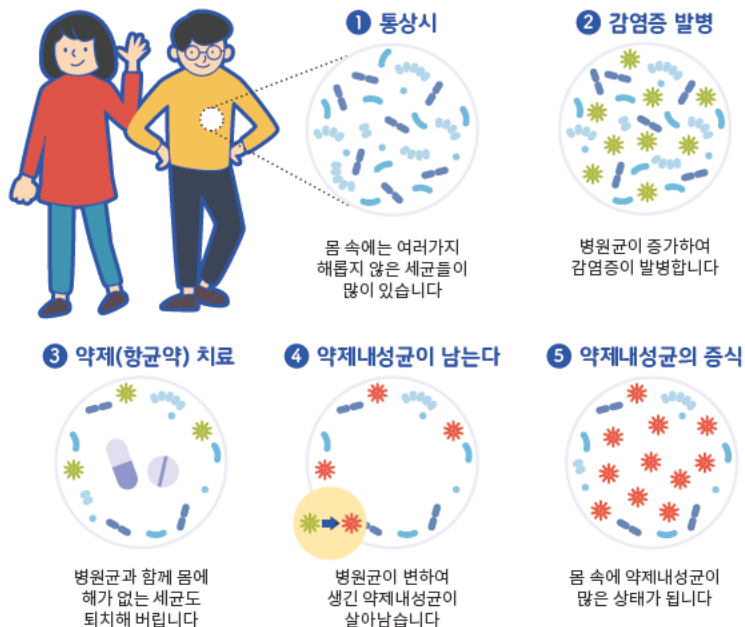
Q.1

약제내성(AMR)이 뭔가요?

A. 감염증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에 항균약(항생물질)이 듣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몸으로 들어간 세균(병원균)이 병을 일으키면 처방받은 항균약(항생물질)을 먹고 치료합니다. 하지만 항균약은 병원균뿐만 아니라 몸 속에 있는 해롭지 않은 세균도 함께 배제해 버립니다. 그 때 항균약(항생물질)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원균이 내성을 가진 ‘약제내성균’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다른 세균이 없어져 살기 좋아진 환경에서 약제내성균이 늘어난 결과, 본래 효과가 있어야 하는 항균약(항생물질)이 병원균에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약제내성이 생기는 과정



항균약(항생물질)이 듣지 않게 되면 감염증 예방이나 치료가 어려워져 각종 의료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Q.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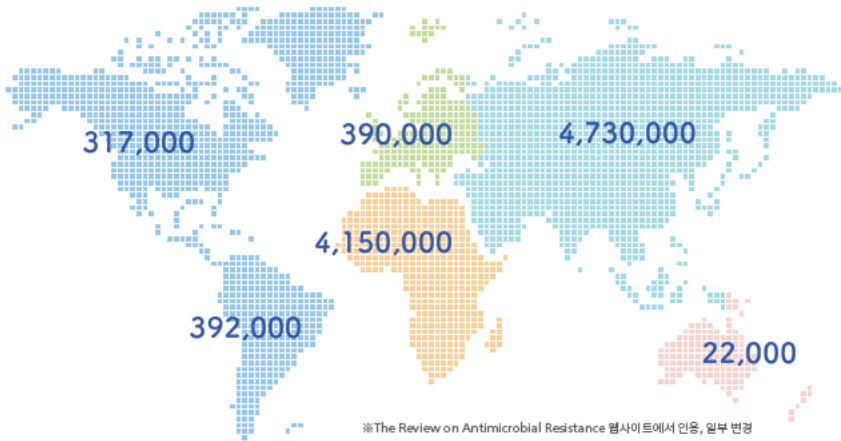
약제내성으로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이대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약 30년 후에는 약제내성으로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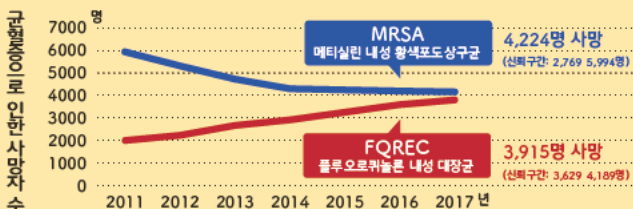
약제내성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세계적으로 연간 약 127만 명에 달합니다(2019년 현재). 또한 2013년 시점의 추정에 따르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을 경우 2050년에는 세계적으로 약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2015년에 약제내성에 관한 국제행동계획이 채택되었고, 일본에서도 약제내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2016년에 약제내성(AMR) 대책 액션플랜이 수립되었습니다. 또한 더 강력한 약제내성(AMR) 대책 추진을 위해 2023년에 새로운 액션플랜이 책정되었습니다.

약제내성에 의한 예상 사망자 수(2050년)



일본에서는 2종류의 약제내성균 균혈증으로 연간 8,000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Tsuzuki S et al. JIC. ther 26 (2020) 367e371368. <https://doi.org/10.1016/j.jiac.2019.10.017>



Q.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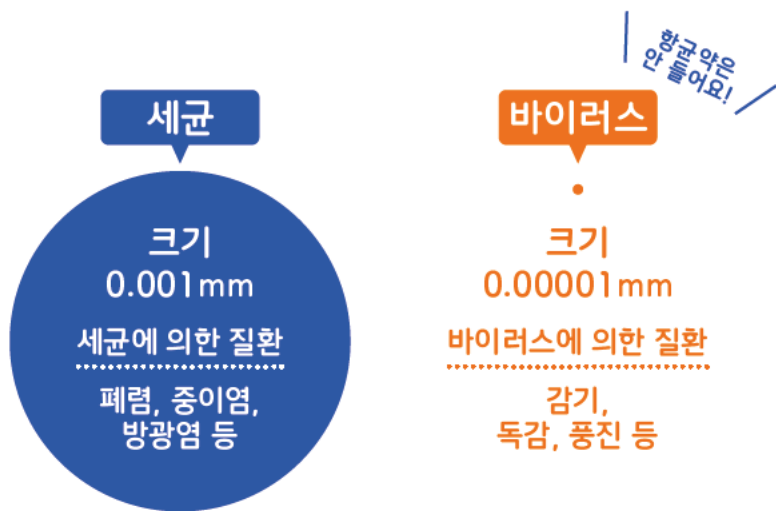
항균약(항생물질)으로 감기가 낫나요?

A. 항균약(항생물질)은 ‘바이러스’가 원인인 감기나 독감 등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항균약(항생물질)은 ‘세균’에는 효과가 있지만, 감기나 독감 등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항균약(항생물질)을 잘못 복용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구토, 발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나아가 약제내성균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



세균과 바이러스는 크기, 구조, 증식 방법 등이 다릅니다.
항균약(항생물질)은 세균에 효과를 발휘하는 약입니다.

항균약(항생물질)은 바이러스가 원인인 질병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항균약(항생물질)을 먹고 좋아졌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항균약(항생물질)의 효과가 아니라 자신의 면역으로 바이러스를 물리쳤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Q.4

약제내성균을 늘리지 않으려면?

A.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항균약(항생물질)을 먹지 않도록 하고, 항균약(항생물질)을 처방받으면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균약(항생물질)은 감기 등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은 항균약(항생물질)은 복용하지 말고, 달라고 하지도 않도록 합니다.

또한 의사는 여러분의 몸에 맞는 항균약(항생물질)을 처방합니다. 처방받은 항균약(항생물질)은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균약(항생물질)은 올바르게 복용합시다



항균약(항생물질)은
의사의 지시대로 복용합시다



항균약(항생물질)은
남기거나 보관하지 않는다



스스로 항균약(항생물질)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



항균약(항생물질)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Q.5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A. 감염증을 예방하면 약제내성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감염증 예방대책!

손 씻기



‘우선 손 씻기’를 습관화하자!

우리 손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균이 붙어 있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균을 받아들이거나 운반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는 감염 경로 차단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기침
에티켓



기침이나 콧물이 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턱까지 완전히 덮도록 착용합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오면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백신
접종



감염증 중에는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백신을 접종해 두면 그 병원체에 대해 면역을 획득해 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되고, 병에 걸려도 가벼운 증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항균약(항생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제내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손 씻기를 잘 실천하고 필요한 백신은 올바르게 접종하여 감염증을 예방합니다.



Q.6

약제내성은 사람만의 문제인가요?

A. 항균약(항생물질)은 축산, 수산, 농산물 등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식품 등을 통해 약제내성균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균약(항생물질)은 사람이나 동물의 의료 이외에도 축산, 수산, 농산물 등 모든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제내성을 가진 유전자가 환경이나 식품을 통해 사람이나 동물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약제내성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물의 건강과 환경 보전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과제 해결을 도모해 나가는 것을 '윈 헬스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전파되는 약제내성균



우리 주변에는 개발로 인한 생태계와 환경의 파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경제와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윈 헬스'의 이념에 따라 함께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용량용법을 지키며 약을 복용하는 것’
항균약(항생물질)을 쓸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모두의 ‘자각’으로 미래를 구한다.

항균약(항생물질)의 용량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필요할 때 약이 듣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적절하게 복용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에게 소중한 여러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제내성(AMR) 대책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이쪽으로



내각관방 내각감염증위기관리총괄청
웹사이트



내각관방 내각감염증위기관리총괄청
보급계발 동영상

제작협력: 국립연구개발법인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병원
AMR 임상레퍼런스센터